

전주세계소리축제 2차 티켓 예매 시작

개·폐막·전통공연·클래식·어린이 공연 등 총 8개 공연 예약 가능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경운)는 15일 유료공연 2차 티켓을 오픈, 온라인 예매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연은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2차로 티켓을 오픈한 공연은 총 8개다.

먼저 개막공연 <잡색X>는 농악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전북 지역 농악인 '임실필봉농악'을 소재로 제작한 공연이다. 농악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이미지와 메시지를 입혀 현대극장 무대 위에 올린다. 또 폐막공연 <조상현&신영희의 빅쇼>는 국창 조상현, 신영희 두 명창을 중심으로 KBS국악관현악단과 전북 지역의 실력 있는 소리꾼 10여 명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소리축제 제작 공연으로 예술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로 넘어가는 모습을 그려낸다.

이어 산조의 밤 <지성자, 정화현>은 지성자 명인의 성곡연류, 정화현 명인의 최옥산제 함동정월류를 통해 각기 다른 두 명인이 들려주는 가야금 연주를 한자리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X 전북CBS <정경화&임동혁 듀오 리사이틀>은 세계적인 두 예술가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첫 듀오 무대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소리축제 프로그램도 더욱 다채로워졌다.



전주세계소리축제 포스터

특히 8월 14~16일 평일에는 개별 공연 관람권을 통해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재활용 인형극 <피리부는 리어가 할아버지>는 다양한 재활용 물건에 생명을 불어넣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며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작품이다. 폴란드 포커스 <마에 인스트루먼트>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소품들을 활용해 작은 악기의 다채로운 소리를 듣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의 악기를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꾸려진다.

8월 17~18일 주말에는 '어린이 소리축제 1일권'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1일권에 포함된 어린이 공연 우당탕탕 서커스 <목립삼(木林森)>은 전주를 찾은 균형의 요원들이 균형을 통해 살아있는 감각에 대해 이야기하는 흥미진진한 우당탕탕 서커스극이다. 또한 세계음악여행 <아일랜드&이탈리아>와 세계음악여행 <폴란드>는 해설과 함께 각 나라의 문화와 악기, 음악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해외 아티스트들의 연주도 감상할 수 있다.

체코의 오브제 세이터 <리틀 비지터>는 '어린이 소리축제 1일권'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색과 종이, 붓으로 그리는 신비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다.

한편 개막공연 <잡색X>와 폐막공연 <조상현&신영희의 빅쇼>는 21일까지 JB카드로 결제 시 50% 할인해주는 조기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모든 유료공연은 인터파크티켓에서 예매가 가능하며, 자세한 공연 및 할인 정보는 소리축제 공식 홈페이지(www.sorifestival.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To. 나의 여행에게, From 하얀양옥집'

8월 11일까지 하얀양옥집 1층서 도내 어반스케치 작가 16인 작품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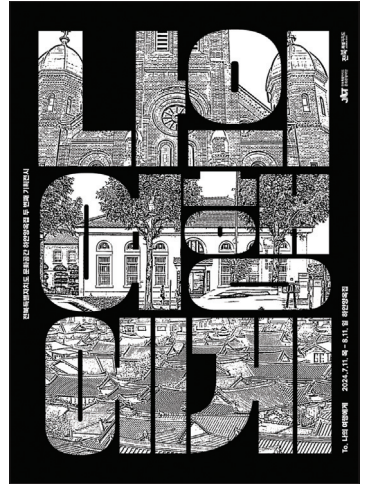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8월 11일까지 하얀양옥집(하양집) 1층에서 도내 어반스케치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 전시 <To. 나의 여행에게>를 진행한다

15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담아내는 어반스케치 작업이 '여행 편지'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휴가철인 7월~8월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방법으로 여행을 사유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어반스케치 단체 '화물 어반스케치'와 '어반스케치즈 전주'의 작가 16인의 작품을 통해 도내 14개 시군의 풍경을 만나 볼 수 있다는 것 역시 재밌는 관람 요소 중 하나다. 또한, 전시 기간 중 관람객과 작가가 함께 어반스케치 작품을 그려보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재단 관계자는 "과거 전북도지사 관사였던 공간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돌아온 만큼 '하얀양옥집'을 통해 관람객과 도민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하얀양옥집은 53년 동안 도지사 관사로 사용되던 공간이 올해 5월 도민을 위



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단장했다.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방되고,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예술화관운영팀(063-230-4231)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서부내륙권 관광활성화 힘 모은다

전북문화관광재단-충남문화관광재단-세종시문화관광재단 3자간 협약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충청남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서홍식), 세종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과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충남문화관광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는 이경운 대표이사, 서홍식 대표이사,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유세준 관광사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충청남도문화 관광재단(대표이사 서홍식), 세종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과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간 300억 규모의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특히 △서부 내륙권 연계관광 코스 상품개발 협력 및 공동마케팅 지원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보 및 인력 교류 △국내 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을 위한 공동 협력 등 서부내륙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세 기관의 연대를 통해 서부 내륙권의 우수한 관광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관광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서부내륙권 광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안착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서부내륙권 전반의 금강 및 백제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서홍식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지역관광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세준 관광사업실장은 "지역관광 혁신 및 지속가능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세 지역이 지원 개발, 지역 인재 육성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13~16일 베트남 현지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라권 연계 공동 캠프터를 진행한다.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베트남 단체 관광객 유치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13~16일 베트남 현지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라권 연계 공동 캠프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터는 광역권 관광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관광상품 기획을 위해 광주광역시관광공사, 전라남도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캠프터는 각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코스를 소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자 베트남 현지 여행사 관계자 27명을 초청해 3박4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거쳐 16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마무리된다.

재단은 도내 캠프터 테마를 치유로 순창에서 사계절의 맛을 자랑하는 강천산 트래킹과,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의 장류체험, 발효소스 토굴 탐방 등을 진행한다.

또한 전주에서 한지 만들기 체험 및 한옥마을 투어를 마련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캠프터를 계기로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라권 연계사업을 더욱 확장하겠다"며 "특히 베트남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